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8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전국 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취지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미래의 작가를 발굴하는데 그 역량을 고무하는 뜻으로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에서 올해 1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모

- 자격 : 전국 고등학생
- 부문
 - 운문 부문 - 시·시조 : 1인 3편 이상
 - 산문 부문 - 소설·동화 : 1인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70매 이상)
 - 수필 : 1인 2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 기간 및 접수
 - 기간 : 2013년 8월 31일까지
 - 접수 : pusanmh@hanmail.net

발표

- 2013년 9월 중순에 당선자 개별 통보
-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홈페이지 (www.clean94.or.kr - 부산모임)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삼빌딩 9층)
- 전자우편 : pusanmh@hanmail.net
- 전화 : 051)898-2672~3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8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시간 밖에서 살다

처음 마음으로 8 분별과 망상에서 깨어나기

참교육 이야기 14 전기대란 위기, 정말 현실로 나타날까?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18 돈 걱정 말고 마음껏 드시라 - 문턱없는 세상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4 아름다운 마무리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6 옛 영화의 변함없는 감동 - 8월의 크리스마스

한국의 탐 30 심곡사 칠층석탑

차내음가득한시간 32 흥차 이야기 ③

천진난만 35 복종

사색의 뜰 36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 / 고독

향기나는 우체통 38 구치소에서 발견한 보물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40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8월 1일 발행 / 통권 222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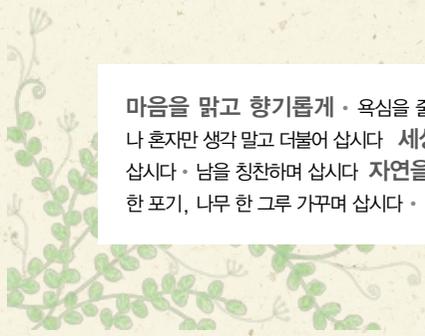


참된 지혜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존재를 찾아내는
따뜻하고 밝은 눈입니다.

-법정-

표지사진 ·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시간 밖에서 살다

글 • 법 정(法 頂)

삼복더위에 별고 없는가.
 더위에 지치지나 않았는가.
 더위를 원망하지 말라.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그 가을바람 속에서 이삭이 여물고 과일에 단맛이 든다.
 이런 계절의 순환이 없다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짜증낼 일이 아니다.
 한반도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복이라 할 수 있다.
 7월 한 달을 나는 바깥출입 없이 이산중에만 눌러앉아 지냈다.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르면서 새롭게 살아보고자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집회의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된 연유로 해서 모처럼 틀에서 벗어난 생활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건전지가 다 소모되어 시계도 멎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람이 시계를 발명한 이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된 것은 지난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시계에 의존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폐단도 있다.

먹고 싶지 않아도 식사시간이 되었으니 먹게 되고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잘 시간이 되었으니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은 시곗바늘에 조종당하면서 삶을 이루고 있다.
 시계가 멎고 시간을 알리는 라디오의 기능이 쉬게 되자, 나는 비로소 시간 밖에서 살 수 있었다. 배가 고파야만 끼니를 챙기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 후에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시곗바늘이 지시하는 시간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이니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태평해졌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나는 비로소 자주적인 삶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질없이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시계에 대한 내 최초의 경험은 불안이었다.
 어린 시절, 고모네 집에 나는 자주 놀러갔다. 고모가 잘해주어 몹시 따랐

던 모양이다. 그런데 빈 방에서 혼자 놀다보면 벽시계의 '똑딱똑딱' 하는 시계 추 소리가 몹시 불안하게 들려오곤 했다. 맛있는 음식을 놓아둔 채 나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고모네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고모는 걱정이 되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갔다.
 요즘은 하나뿐이지만, 불일암에서 살 때만 해도 방마다 탁상시계가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시간의 노예 노릇을 충실히 한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계는 산 아래로 내려 보냈다. 손님으로 가서 객실에 들어 묵을 때도 벽시계가 됐건 탁상시계가 됐건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시계추를 멎게 하거나 건전지를 빼 두는 것이 나그네의 습관처럼 되었다. 물론 객실에서 나올 때는 원래대로 살려 놓고 나온다.
 손목에 수갑처럼 치는 것이 싫어서 손목시계를 한사코 멀리해 오다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부터 외출할 때만 할 수 없이 차게 됐다. 그러나 시간의 노예임을 스스로 표시하고 다니는 꼴이다.

내가 송광사에서 수련회를 주관할 때는 수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계를 풀어서 보관하도록 했다. 모처럼 시한부 출가생활을 하는 수련생들에게 시계의 굴레와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가까운 시간을 쏟아 버린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짜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을 안 것이다. 시곗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팔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다.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들

자신도 시간 앞에 점점 냉혹해져 가고 아박하게 전락되어 간다. 한참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다됐다고 일손을 놓아버리기가 일쑤다. 물론 김에 조금만 더 일을 하면 깨끗이 끝낼 일도 시계를 보고 일손을 중단하고 만다. 이젠 시계의 노예로 익힌 나쁜 근성이다. 시곗바늘이 미치지 않는 일터에서 인간의 덕이 두터워진다는 노동의 비밀도 터득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죽는 일도 그 시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시계바늘에 의존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시간-에겐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 있다는 소리이다.

세상살이에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

고 일러준다.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됐건 언짢은 일이 됐건 안팎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노인들은 풍진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은 가끔 해결해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덕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 푹 자고나서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씩 해결해 버리려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간 밖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 오두막 편지 중에서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미술, 음악, 사진, 놀이, 인문학, 강연 등의 문화 활동을 진행, 기획하는 분과의 교류를 원합니다.

우리 심성과 세상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을 이웃과 나누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나눠줄 수 있는 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문의 : 중앙 사무국 02,741-4696)

분별과 망상에서 깨어나기

글 • 덕 윤(德 耘)

《화엄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습니다.

『보살은 세상법이 모두 꿈같은을 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본체와 성품은 언제나 적멸하다. 꿈의 본체는 생멸이 없고 또한 일정한 장소도 없다. 삼계(육계, 색계, 무색계)는 모두 이와 같나니 그렇게 보는 이는 마음이 해탈하다.』

우리는 자면서 꿈을 꾸는다. 꿈속에서도 우리는 청·황·적·백의 갖가지 형상들을 봅니다. 꿈속에서도 즐거우면 웃고, 괴로우면 화를 내며 모든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과 똑같은 상황을 꿈속에서도 느낍니다. 이러한 꿈과 여러분

이 실제라고 느끼는 이러한 현상들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이 뒤바뀐 꿈 생각이라는 겁니다.

중국에 “한단지몽(邯鄲之夢)”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사(道士) 여옹이라는 사람이 한단이라는 마을을 지나다 길가에 있는 여인숙에 들어가 자리를 간 후 행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그 마을에 사는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짧은 갖옷(안감을 짐승의 털가죽으로 댄 옷)을 입고 망아지를 타고 밭으로 가는 길에 잠시 여인숙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옹과 같이 재미나게 이야기

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자기 신세타령을 하더니 피곤해서 즐기에 여옹이 자신의 행장 속에 있는 베개를 꺼내 노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좁쌀로 막 밥을 지으려는 중이었습니다. 노생은 베개를 베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생은 양갓집 규수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 여인은 얼굴이 아주 아름답고 살림이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속에서 노생은 벼슬을 하여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장군이 되어 오랑캐를 다스리고 국토를 넓혀 그 벼슬이 재상에 까지 올랐으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옥졸들이 와서 잡아 묶으려 하니 노생은 뜻하지 않은 일에 당황하여 울면서 처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은 원래 산동사람으로서 몇 이랑의 좋은 밭으로 추위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는데 무엇 하러 녹을 구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짧은 갖옷을 입고 푸른 망아지를 타고 한단 길을 가려 한들 다시는 갈 수

가 없구나!” 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지만 그 아내가 말려 죽지 못하였습니다.

공모한 사람은 다 죽었으나 노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 다시 벼슬에 올라 나중에는 임금의 지극한 은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벼슬 길에 올라 그 집안이 모두 천하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늘그막에 이르러서는 쾌락을 좋아하여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에 늙어가므로 스스로 벼슬을 그만 두고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임금에게 글을 올려 은혜에 감사하니, 임금은 신하에게 조서를 내려 문병을 하게하고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노생은 임금의 글을 받은 그 날 저녁에 죽어버렸습니다.

노생은 꿈에서 모든 가족 친지들이 모여 슬퍼하는 걸 보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

보니, 제 몸이 여인숙에 누워있고 그 곁에 여옹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깃털 좁쌀 밥은 아직 익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한숨지으면서 “아... 꿈이었던가?”하고 한참을 앉아 생각하다가 “총애와 모욕과 분수와 얻고 잃음의 근원과 살고 죽음의 정을 다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실제라고 여기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눈앞에 펼쳐진 경계에서 나와 너, 부모 친척, 괴로움과 즐거움, 근심과 기쁨이 이렇도록 역력하고 분명한데 어찌 이것을 꿈이라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생이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눈앞의 것들에 집착하며 산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꿈을 꿀 때와 깽 때의 경계는 오직 자기 마음의 변화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보

통 사람들은 꿈의 경계는 거짓이라 믿고, 깽 때의 경계는 진실이라 집착하기 때문에 그 둘이 다 같은 마음의 경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의식이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 요상한 짓을 한 것입니다. 깽 때와 꿈 꿀 때의 경계는 다르나, 모두 의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계는 모두 의식뿐이니, 꿈은 의식이 반영하여 일어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의식은 제 성품이 없고 모든 것은 오직 한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마음의 체성은 본래 비고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고, 비추면서 항상 고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성의 깨달음은 묘하고도 밝으며, 본래의 깨달음은 밝고도 묘하다.』 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꿈이란 본래 꿈의 체성이 없으며 깨달음이란 본래 깨달음의 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음을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각(知覺)선사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꿀 때 여러 가지 현상을 보지만, 깽 때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도 눈앞에 온갖 법(法)이 있다고 믿으나, 만일 그 성품을 깨우치면 마침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서는 말하거나 보일 것도 없고 듣거나 얻을 것도 없다. 그러므로 중생도 범부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니 미혹한 것이 완전히 비었기 때문이요, 모든 부처님도 진여(眞如)의 문(門)을 증득하지 않았으니 깨우친 때에는 얻음이 없기 때문이다. 끊어야 할 한 가지 법(法)도 보지 못했으니, 생사(生死)에서 나올 문이 없기 때문이요, 이루어야 할 한 가지 법(法)도 보지 못했으니 보리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익경(思益經)>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에서 나와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요, 다만 생사와 열반의 두 소견을 건지기 위해서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보살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슴으로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을 모조리 이해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아서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허다한 망상을 바로 끊어 깨닫고자 한다면, 그저 십이시(하루를 12등분으로 나눔)와 행주좌와와 내에 보고 듣고 반연을 따르는 곳에서 철저히 깨어 있는 정신으로 『이 뭐고?, 화두를 들어나기야 합니다. 오롯하고 맑은 정신으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끊임없이 참구해가야 합니다.』

일반 세상사도 어떤 일을 성취하자면, 온 정신을 모아 전력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검생래로 이어온

업을 해소하고 참자아를 찾는데 어찌 이것을 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선경어〉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는 잠시도 여의지 못할지니, 가히 여의면 도가 아니요, 공부는 잠시라도 끊이지 못할지니, 끊이면 공부가 아니리라. 진정 참구하는 사람은 마치 불이 눈썹을 태우는 듯하며, 또한 머리에 붙은 불 끄듯 할지니, 어느 겨를에 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리오? 옛 어른이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만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면 마주 보고 어찌 눈인들 깜빡임을 용납하리오.’ 하니 이 말이 공부를 지어 가는 데 가장 요긴한 지라 몰라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인의 말씀을 뼈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일 저일 다 쳐놓고 확고한 마음으로 분연히 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도(求道)의 과정에는 승속이 있을 수 없으며, 또 도 닦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구도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을 제외하고 따로 도를 닦을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벽선사의 〈완릉록〉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인용해보겠습니다.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마음이 마치 원숭이와 같아서 여러 가지 법(法)으로 마음을 제어한 다음에야 비로소 조복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法)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법(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 천상, 지옥, 축생, 아귀, 수라 등의 육도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무심하기만 하면 모든 반연은 단박에 쉬게 되며, 망상과 분별을 내지 않으면 남도 없고 나도 없

으며, 탐욕과 분노도 없으며, 미움과 사랑도 없으며, 승리도 패배도 없다. 수많은 갖가지 망상을 버리기만 하면 성품은 본래부터 깨끗하다. 이것이 곧 보리, 법, 부처 등을 수행(修行)하는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애써 수행하며, 나무와 열매를 먹고 풀 옷을 입고 고행을 하더라도 자기마음은 알지 못한 것이니, 이것을 모두 샅된 수행이라고 한다. 모두 천마, 외도, 물, 물의 여러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니,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지공스님이 이르시기를 “본래 몸은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이거늘, 어찌 문자 속에서 찾으랴?”라고 하였으며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서 분별하는 허다한 망상을 쉬기만 하면 번뇌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완릉록〉은 당대의 재상이기도 한 속가재자인 배휴가 완릉땅에 관찰사로 재임하였을 때 용흥사, 개원사에서 황벽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해서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즐겁고 보람찬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 불기 2557년 6월 초하루
(2013년 7월 8일) 법문

전기대란 위기, 정말 현실로 나타날까?

글 • 김용택

「전력난 다음 주가 고비 기업들 정전 대란 막아라.

다음주 전력 비상. 예비전력 149만 KW 불과

기업들, 십사일반으로 250KW 줄이기 나서

고리1호기 재가동. 정전 대란 피한다.」

보수언론의 '전기대란' 시각이다. 조선, 중앙, 동아 3대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울여름 당장 전기대란을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지울 수 없다. 주류언론의 방정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 대란이 일어날 만큼 위기 상황일까?

2013년 현재 한국의 전력 설비용량은 약 8,000만kW로 평균 전력 수요는 약 6,000만kW다.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

에는 40% 가까운 전기가 버려진다. 땅 끝 원전에서부터 서울 수도권까지, 지금 전기는 흘러넘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피크타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크타임은 1년 8,760시간 중 단 500시간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제한송전', '수요분산' 등 지금의 예비 시스템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블랙아웃,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전국에 건설된 송전탑은 현재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1,700기의 송전탑을 더 건설할 예정이다. 한전은 블랙아웃

에 대비해 더 많은 원전과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전력량이 충분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생산이 아닌 관리다. 사상 최대 정전 사태였던 2003년 미국 동부 정전사태는 초고압 송전선로 고장이 원인이었다. 하나로 연결된 전력망을 재빨리 차단하지 못하면서 정전이 자꾸 퍼져 결국 대규모 정전을 불러온 것이다. 2011년 9월, 650만 가구가 겪었던 한국의 정전사태는 한전이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데다가 위기 대응을 허술히 해 일어난 결과였다. 2013년 6월 현재,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 고장과 내부 비리 사건으로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멈추고 있다. 전력수급 관리는 커녕 원전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년 중 피크타임이 있는 단 며칠, 하루 30분 정도만 돌아가며 순환단전을 시행해도 전력난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정전은 모르고 당한다면 사고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잠깐의 불편일 뿐이다.

전기 대란이 일어나면 주택부터 단전... 왜?

재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급이 부족해 전력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 백화점·마트, 대기업·산업시설 순으로 단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소비량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전체 전력의 70% 가량은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건물에서 쓰인다.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하면 1/3에 불과하다.

값싼 전기요금은 소비를 부추겨 지난 5년간(201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3% 증가했지만, 상위 30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50% 증가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석유 등의 1차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떨어지는 전기로 용광로까지 데우는 등 기업의 전기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은 정부였다. 1980년대 중반, 잇따라 완공된 원전에서 전력수요를 훨씬 웃도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전기 요금을 9차레나 인하하였다.

효율을 위해 대규모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전기 문제의 핵심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독점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의 전력수급 방식은 중앙집중형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국 곳곳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전체 발전량을 늘려야만 해결할 수 있기에 관리가 어렵다.

결국,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발전소의 규모와 숫자는 점점 커지고 수많은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도시 전력소비를 위해, 밀양과 같은 지역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전기는 깨끗한 에너지다?

전기는 사용하는 곳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

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5개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이다. 국내 총배출량의 1/4 이상이다. 이는 네덜란드(2008년 기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넘는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화력,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암에 걸려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의 폐해를 은폐하고 있다.

인간이 끝수 없는 불, 원전 의존도 세계 2위의 한국, 그동안 알려진 원전 고장 사고만 해도 672건에 달하며 현재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 중 고장 나지 않았던 원전은 하나도 없다. 전기대란! 해결책은 없을까?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원전 18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원전 대국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지역 간 편차제도를 도입해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에서는 유

채 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안 에너지는 비용 또한 경제적이다. 2012년 1kWh당 180원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20년에는 110원으로 하락할 전망이고 150원 발전단가인 화석연료보다 낮다.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즉시 할 수 있다.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 반대투쟁을 하는 이유

‘햇볕이 가득한 마을’ 밀양에는 지금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로 74세 노인이 분신, 사망하고 할머니 20여 명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9년째, 목숨 건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5월 20일, 한국전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공사는 울진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 수도권까지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2005년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

후 한전은 토지강제수용을 시작했고, 반대하는 7,80대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을 동원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밀양 주민은 왜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는가?

밀양에 들어설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소도 불임이 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 그 아래 학교와 마을과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근거가 없다며 전자파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전 직원이 말한다. ‘할매는 전기안 썬니까?’

“맞다, 나는 전기안 썬도 산다. 그러나 나나 살자고 남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우리가 남겨줄 게 달리 뭐 있겠노.” 밀양 할머니들의 말이다. 지금 밀양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어떤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가. 이제는 나쁜 전기를 거부하고 조금씩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라고…….

돈 걱정 말고 마음껏 드시라 문턱없는 세상

글 • 변택주

“식구가 오순도순 한데 모여 사는 가정은 어느 때든 반갑게 맞아주며, 지치면 돌아가 쉴 수 있는 곳인데 요즘은 텅 그마니 쓸렁한 가옥만 남고, 훈김어린 가정이 사라졌습니다.” 2005년 4월 길상사 봄 정기법석, 법정 어른스님께서 탄식처럼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 뒤 점점 더 심해져서 요즘 우리나라 1인가구가 전체 가구 가운데 25퍼센트를 넘어 가파르게 늘어 살갑고 도타운 식구가 그리운 세상이다.

음식과 약은 한 뿌리

여기 한솔밥을 나눠 먹는 두레 밥상이 있다. 점심 때 유기농비빔밥을 나누는데 밥값은 사람이 없이 텅 빈 계산대 앞에 놓인 통에 손님 형편에 따라 직접

넣는다. 손님은 거개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분들로 원가에 크게 밀도는 만 큼밖에 내지 못한다. 그나마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음에 돈을 벌면 내시라’며 밥값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넉넉한 분들은 넉넉히 더 내어 어려운 이웃과 밥을 나눠 먹는 식구가 될 수 있다. 벽 한 칸에는 ‘남기지 말고 마음껏 드시라’라는 글이 적마립되어 있다. 정성껏 지은 유기농비빔밥을 양껏 먹는 대신 절 집 발우공양처럼 송늬와 김치 조각으로 고춧가루 하나까지 샅샅이 씻어먹는 ‘빈 그릇남기기’ 운동이다.

이 밥집이 태어나게 된 데는 깊은 뜻이 더 있다. ‘음식과 약은 한 뿌리며, 건 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

다’는 뜻과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한다’는 농부철학자 윤구병 선생 뜻을 담아 세운 변산공동체학교 농부 20여 분과 유학생 40여 명이 한데 어우러져 제 초제나 농약, 화학 비료와 비닐도 쓰지 않고 지은 유기농산물을 도시 사람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로 주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더불어 살자는 뜻을 담았다. 이 바탕에서 (재)민족의학연구원(이하 민의원)이 2007년 5월 문을 연 문턱없는 밥집 이름은 민의원 이사를 맡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지었다. 한 해 동안 버는 돈이 700달러를 밀도는 소득을 증명하면 밥값을 반만 받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경계없는식당(Grenzenlos)’을 우리말로 곁고이 풀어낸 이름이다.

2008년 5월 민의원 이사회가 문턱없는밥집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넣기로 했는데 사무국장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만 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를 냈다. 그랬기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에 없는 이윤 사업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신고와



문턱없는 밥집

다른 목적 사업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행정 실수가 뒤늦게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내지 않아도 될 취득세와 등록세를 1억6000만 원이나 한꺼번에 물어야 했다. 후원기관 도움으로 세금은 모두 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이 밥집이 장학·학술재단인 민의원 사업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하는 수 없이 민의원 이사회는 시작부터 다섯 해가 넘도록 적자를 계속 봐 오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밥집 문을 닫기로 한다. 보다 못한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난해 12월 밥집이 서울시마을공동체 기업으로 되면서 서울시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 임대보증금을 마련 불씨를 지피고, ‘사회적 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을 만들어 올해 5월 11일 되살려냈다.

‘협동조합 문턱 없는 세상’ 초대 이사장 엄민영(50) “2007년 문 열던 날부터 단골이에요. 제가 일인출판사를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여서 밥값을 3천원도 내고 5천원도 내며 신세를 졌어요. 그러다 밥집이 없어진다니까 저 때 문인 것 같아 함께했어요.” 그러나 ‘문턱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숨이 가쁘다. 적어도 들어오는 줄기와 나가는 줄기가 같아야 하는데 들어오는 줄기보다 나가는 줄기가 훨씬 크다.

유기농식재료만 쓰기에 재료값이 만만치 않은데다 착한 소비를 하겠다고 일부러 찾는 손님이 드문 탓이다. 게다가 밥집 문을 열 때 저녁 손님을 받아 낮에 나누어 생긴 적자를 매운다는 십시일반(十匙一飯) 전략이었는데, 점심 유



빈 그릇 밥지기

기능비빔밥을 나눈다는 소문만 나서 셈이 었나갔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할머니 밥집

그러면 문턱없는밥집 어머니 격인 독일 ‘경계없는식당’ 사정은 어떨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2004년 경계없는식당을 찾은 적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한다. “아침 10시인데도 사람들로 북적댄다. Walter Scheffler는 덩치 큰 마음씨 좋은 아저씨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큰 목소리에 언제나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경계없는식당’ 대표답게 넉넉한 인상이다. 언제나 온다는 할머니 그룹이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긴 식탁에는 20여 명 남짓한 남녀학생들이 뭔가 심각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 셰플러씨 말에 따르면 어떤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실습을 겸한 현장학습을 하고 있단다. 이곳은 이미 뒤셀도르프 명소이다.

셰플러씨는 이 식당 아이디어를 프랑스 Coluche란 ‘가슴식당’(Restaurant

du coeur)에서 얻었다고 한다. ‘경계없는식당’은 많은 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에서도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1995년 창립된 이 식당에는 실업자, 정신이상자, 노령자를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쉬인다. 물론 결혼은 동네 사람들도 적지 아니 온다. 그야말로 경계가 없는 식당이다.”

나눔 밥상 원조 격인 프랑스 ‘가슴식당’은 어떨까? ‘가슴식당’은 유명한 프랑스 코미디언이자 배우였던 꾸르세 Coluche(1944~86)가 1985년 만든 밥집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거저 나누는 단체이다. 시작부터 정치 지도층이 관심을 기울인 덕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 참여도 이끌어냈다. 프랑스 ‘가슴식당’은 본부와 117개 지부를 뒀는데, 벨기에와 독일에서도 독자 운영을 하고 있다.

2012년 3월 2일 금요일, “불행하게도”

식품 원조 센터 방문자 수가 이전 기록을 갈아 치웠다고 “가슴식당” 대표 올리비에 베르스Olivier Berthe가 밝혔다. 베르스에 따르면, 2011~12년도 캠페인 때 90만 명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배급 받았는데, 한 해 전 겨울 캠페인 86만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 그런데도 베르스는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제 100만 명이 되었다.’는 말을 하기까지 다음 선거 때인 2017년까지 기다리면서 마뜩치 않은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할까요? 저는 이 물음에 답을 해줄 대통령 후보를 기다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2012년 2월 29일 6월에 대선을 치를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가난 문턱 아래에 턱걸이해야 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담았다.

문턱없는밥집 어머니 경계없는식당과 할머니 가슴식당은 유럽 명소를 넘어 세계 명소로 자리 잡아 가는데 우리 문턱없는밥집은 걸음마를 언제나 끝내

려나.

식구는 한술밥을 먹는 사이

삶에서 먹는 일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살아내려면 뭔가를 먹어야 하기에 먹는 일이 사는 뿌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는 뿌리가 되는 한술밥을 같이 먹는 일은 경계를 허물어 서로를 받아들여 흉허물 없이 민낯을 내보이는 사이다. “백성들은 먹을거리로 하늘을 삼는다.”말이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풀해보면 석 삼드 자를 1로 꿰어놓았다. 삼드는 우주 질서 천지·지해·인사를 가리킨다. 농업이 하늘과 땅 일에 뿌리인 까닭도 천시(天時)에 따라 지의(地宜)를 써서 인력(人力)을 다하기 때문이다. 쌀이나 보리 한 톨에 커다란 ‘하늘과 땅, 사람’ 조화가 깃들여 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끄는 왕은 모름지기 슬기롭게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조화를 이루게 해 백성을 잘 먹일 때 비로소 하늘이 된다. ‘백부’은 전체를 두루 아우르는 ‘온’이란 뜻이 담긴 말로 백성은 온 존재를 빠짐없이 두루 아우르



내 먹을 만큼 먹는 카페테리아

는 말이다. 그런데 문턱없는밥집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 밥 문제를 나라 사람 스스로가 풀어보겠다고 나서 백성이 백성을 섬기는 결고운 발걸음이다. 일본 전설이 된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내 먹을거리를 나누어 먹어야 진정한 나눔이라고 했다.

지금 문턱없는밥집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다 맛있는 요리로 탈바꿈시키는 연구가 한창이다. 적어도 독자들이 이 글을 만날 때쯤이면 변산공동체 농부들 땀이 서린 ‘참 효소’로 버무린 밥상이 한술밥 식구를 기다리리라. 저녁에 문턱없는밥집에 가면 효소장에 찍어 먹는 유기농 김치전을 비롯한 별교꼬막이나 효소복어구이에 곁들여, 무형문화

재 송명섭 명인이 손수 농사지은 쌀로 빛은 막걸리나 변산공동체에서 빚어 올린 솔잎술을 마셔볼 일이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맛있게 먹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두레식구를 만들어 어깨동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협동조합원이 되어 식구를 도타이 보듬는 일에 한 발을 썩 내디딜 수도 있다. 나눔과 비움 밥상공동체 문턱 없는 밥집(02-324-4190)은 합정역에서 머잖은 마포구 서교동 481 태복빌딩 1층에 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현실이러는데. 결고운 마음들이 문턱없는밥집이 없는 문턱이 닳고 달도록 드나들어 누리 곳곳으로 퍼져나가 누구라도 한 끼 식사는 편안하고 맛있게 먹는 문턱없는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문턱없는 밥집 입구 안내판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를 나누보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자연을 아끼면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나만의 비결이나 수행과 신행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충만함이나 내면의 깊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아름다운 마무리

8월의 결연 대상자 - 김용구 어르신

종로 3가 피카디리극장 뒤편으로 들어서면 사람 한두 명 정도 드나들 수 있을 법한 좁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대낮에도 어두운 골목길을 들어서면 사람 키보다 낮은 높이의 작은 문들이 1미터 간격으로 빼곡히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골목 입구에는 몇 명이 모여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안주라고는 달랑 김치 하나뿐입니다. 지친 삶의 깊은 체념이 깃누르는 절망적인 분위기를 느낍니다.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외롭게 누워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에서 매주 제공하고 있는 430여 개의 밀반찬 중에서 25

개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8월 결연 대상자 김용구(79세) 어르신은 25명 중의 한 분입니다. 쪽방은 0.7~1.2평 정도로 성인 한 명이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김용구 어르신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2층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대 쪽방촌 거주자는 668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21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960년대 집창촌이었던 이곳은 IMF 한파와 함께 본격적으로 쪽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고시원에도 입주하기 어려운 곤궁한 분들이 모여들어 쪽방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김용구 어르신이 받는 기초생활급액 45만 원 중 20만 원이 매달 월세

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기밥솥과 물을 끓이는 전기 포트 외에 다른 조리 기구는 없습니다. 건물주가 화재나 안전을 위해 일절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밀반찬을 가지고 간단하게 요기하고 점심은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남 4녀의 형제들이 있지만 서로 소식을 끊고 독거노인으로 지내오면서 쪽방촌에서 살아오신 지 10여 년이 되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랫동안 변압기 제조 회사의 수리공으로 일하고 의자 생산 공장에서도 근무한 바 있었지만, 수입이 적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동생들의 집에 얹혀살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30년 전 동생들이 이민을 가면서 혼자 남은 어르신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랜 노숙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새벽 3시 반. 굳게 닫혀 있던 셔터가 열리면 서울역으로 들어서던 기억이 분명한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에서 라면 한 그릇 마음대로 끓여 먹기 어려운 쪽방촌이지만, 이제는 이 삶이 익숙해져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철 결핍성 빈혈, 위궤양, 폐결핵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자면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기만 합니다. 김용구 어르신이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한 결과가 바로 오늘이 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구석, 우리 마음 한구석 한구석의 상처를 보듬어봅니다.

독거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은 독거노인 결연후원, 의료비, 난방비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의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 성금 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8월 10일(토) 청량리역 현관 입구(3층)
 - 8월 25일(일) 길상사 경내



옛 영화의 변함없는 감동 8월의 크리스마스

글 • 서정민갑

혹시 여러 번 다시 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새롭게 쏟아지는 영화를 쫓아가기도 어려워서 예전에 봤던 영화를 굳이 다시 찾아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봤던 영화들 중에서 정말 좋았던 영화를 다시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영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몇 번을 다시 봐도 볼 때마다 감동 받고,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대사 하나 하나와 장면 하나 하나를 다 외워버릴 정도가 되어도 같은 영화를 다시 보는 거겠지요.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다시 본 영화가 몇 편 있습니다. 한국 영화중에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서너 번쯤 다시 봤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를 1998년에 서울에서 본 관객이 42만쯤이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를 상영관에서든, 비디오나 DVD를 통해서든 한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에는 이 영화가 한국 영화 흥행 3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객 48만이면 결코 흥행에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성적입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 산업의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관계없이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영화이고, 많은 이들이 다시 찾아보는 영화이고, 새로운 분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입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이고 좋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기존의 한국 영화와는 달리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고향에서 초원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원(한석규)과 주차단속을 하는 다림(심은하)이 우연히 만나서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영화라고, 그런데 정원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서 결국 죽고 만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줄거리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줄거리라면 흔히 나올법한 눈물 바람의 신파도 없고 달콤한 로맨스도 없습니다. 정원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냥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통곡 한 번 하고 맙니다. 친구와 술마시고 께판 한 번 치고 맙니다. 정원과 다림 역시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한 번 잡지 않고 입술 한 번 맞추지 않습니다. 다림이 정원의 병을 알고 통곡하지도 않고, 정원의 병이 갑자기 낫는 일도 없습니다. 요즘의 한국 영화나 막장 드라마에 비하면 정말 맛있게 그 지없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영화가 상영 중이었을 때, 우연히 합승한 택시승객 한 분은 이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 앞을 지나가면서 “무슨 영화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이전의 어떤 영화나 그 이후의 어떤 영화도 주지 못한 가슴 아린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인공 정원의 시선에서 펼쳐 집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보겠다고 여행을 떠나거나 연애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똑같이 사진관을 열고, 손님을 맞고, 시간이 되면 문을 닫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원의 일상은 더욱 소중하고 애뜻해 집니다. 감독은 이렇게 소중한 정원의 일상을 촬영감독 겸 유영길의 따뜻하고 세밀한 카메라로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변두리 도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빛을 그대로 담아낸 그의

카메라는 역지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보고 느끼는 바로 그 빛, 그 공간과 공기의 느낌입니다. 역동적이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의 카메라는 정원의 시선이 머무는 일상을 잔잔하게 담아가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원의 시선에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식구들과 밥을 먹고, 수박씨를 뽏고, 마루에 누워 있는 그의 모습은 아무렇지 않지만 결코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보는 이의 가슴은 더욱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정원과 다림의 사랑 때문입니다. 차분한 정원과 조금은 당돌한 다림은 사진관에서 만나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어 갑니다. 주차단속 사진을 맡기러 온 다림이 계속 정원을 찾고, 함께 걷고, 이야기 하는 순간들은 정말 평범하고 소소하지만 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을 과한 조명과 촬영으로 담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일렁이듯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오는

날 정원과 다림이 한 우산을 쓰고 보이지 않는 영화 카메라 앞까지 그대로 지나가는 롱테이크는 정원과 다림의 풋풋한 젊음, 그리고 한석규와 심은하의 풋풋한 젊음을 아찔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정원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고 다림은 아무런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정원을 기다리며 사진관 앞을 하염없이 서성입니다. 둘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정원이 잠깐 사진관에 돌아왔을 때 정원은 다림이 남긴 편지를 읽는 것 같고 답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편지를 다림이 읽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감독은 죽어가는 정원이 멀리서 주차 단속을 하는 다림을 보고 손을 내밀어 창을 이루만지는 장면을 넣어 이별할 수밖에 없는 둘의 인연을 더욱 아프게 보여줄 뿐입니다. 특히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화가 난 다림이 늦은 밤 사진관 앞에서 있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 둘을 던져 우리

창을 깨는 장면은 정말 보는 이의 가슴에 돌을 던지는 듯 생생한 생채기를 남깁니다. 허진호 감독의 연출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영화는 허진호, 신동환, 오승욱의 대본, 허진호 감독의 연출, 한석규와 심은하의 연기, 유영길의 촬영, 조성우의 음악 모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화감독 지망생들이 이 영화 같은 영화를 한 편이라도 찍고 싶다고 고백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배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놀리는 것은 정말 한 장면도 버릴 장면이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 교과서적인 영화라는 점입니다. 관조와 절제, 서정이 빛나는 영화입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보고 나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영화이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밀도가 높고 울림이 큰 드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998년에 나왔으니 벌써 15년 전이군요.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20대였던 저도 이제는 40대가 되었고,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허진호 감독은 이 영화를 찍은 뒤 〈봄날은 간다〉, 〈외출〉, 〈행복〉, 〈호우시절〉 등의 영화를 찍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이자 멜로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주연이었던 한석규는 그 뒤로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찍으며 손꼽히는 배우가 되었고, 심은하 역시 그 뒤로도 좋은 연기를 선보였지만 결혼과 함께 아쉽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석규와 심은하의 젊은 날을 볼 수 있는 영화이자, 허진호 감독의 출발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영화를 처음 보았던 시절의 자신과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순간의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가 만드는 추억의 힘일 것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길,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여러 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오래 전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심곡사 칠층석탑

글 • 박희준

신라 헌덕왕 13년(821년) 당나라에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병고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여 동방의 대보살로 추앙받았던 선승 무염은 문성왕 때 수행할 장소를 찾던 중 미륵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 절을 세웠습니다. 이 절은 이후 19세기에 중건됐으며, 100여년 전 현재의 위치에서 200m쯤 떨어진

산동성에서 옮겨와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절이 전북 익산의 미륵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심곡사입니다.

이 심곡사 대웅전 앞에 칠층석탑(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이 있습니다. 지대석과 지복석 위에 대좌 형식을 따른 1층의 기단을 놓았고 그 위에 7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리고 맨 위에는 연

꽃 봉우리 모양의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느낌을 줍니다. 탑의 조성 기법을 보면 지대석은 주변의 땅 높기와 상면을 맞추었고, 그 위에 대좌 형식의 하대석과 중대석 및 상대석이 각각 다른 돌로 만들어져 쌓아 올렸습니다. 하대석은 복련(엮어 놓은 모습의 연꽃문양)을 새겼고, 중대석은 기둥(우주와 탕주) 모양을 생략하였으며, 상대석은 양련(위를 향한 연꽃문양)을 새겼습니다.

탑신에는 기둥모양이 생략되었으며, 각 층의 탑신과 지붕돌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탑은 널리 알려진 탑이 아니고, 탑의 일부가 보수된 흔적이 있는 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예술적 가치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탑의 제작 시기 또한 조선시대에 세워진 탑으로 알려져 역사적 가치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단부에 나타난 고려시대 탑의 형식, 백제의 양식을 따른 지붕돌, 조선시대의 형식을 따른 층급받침 등 이 지역



심곡사 칠층석탑의 탑신 (사진: 문화재청)



심곡사 칠층석탑의 사리장엄구 (사진: KBN방송)

의 석탑변화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부분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지난 2012년 5월 해체 보수공사 하였는데 이 때 탑 기단부 중대석에서 사리공이 발견되고 사리공 안에는 백자 소호 1점, 여래 및 보살상 등 7구 정도가 봉안되어 있었으며, 백자소호 안에서는 사리 1과, 청동원경 1점, 향목, 직물조각 등이 확인 되면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곡사 대웅전과 칠층석탑



심곡사 칠층석탑의 기단부 (사진: 문화재청)

홍차 이야기.3

글 • 문정숙

종일 비가 내리던 7월의 어느 날, 몇 몇 다우와 함께 경희궁 후원에 있는 서암을 보러갔다. 영조의 어진을 본 후 서암에 다다르니 바위 틈새로 흘러내린 물에는 연록 색 비단이끼가 무성하다. 순간 그 옛날 이른 새벽에 임금님 세숫물을 길러 나온 어린 궁녀의 풋풋한 얼굴이 동그랗게 그려진다.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소리를 들으며 한적한 궁터를 한 바퀴 돌아 나와 마음에 드는 찻집을 찾아 빗길을 걷는 잔잔한 행복을 누리 본다.

6. 영국의 홍차 문화

캐서린이 포르투갈에서 음다풍속을 들여온 것처럼 새 여왕 메리는 네덜란

드로부터 차, 자기, 칠기 등 동양적 취미를 들여왔고 메리의 동생 앤 여왕 역시 동양의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 당시 영국이 중국에서 직수입한 홍차는 무이산 소종홍차였는데 소종홍차는 차의 건조과정에서 소나무를 태운 훈현향이 스며들어있어 향을 즐기는 영국인들의 기호에 잘 맞았다. 백색의 금이라 불렀던 중국산 자기에 값비싼 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시고 즐기는 모습에는 상류계층의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일각에서는 차를 살돈이 있으면 빈민에게 자선해야한다는 반대론이 일기도 했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곧 고품격의 취미를 즐기는 상류계급에 속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재

력이 있는 사람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를 원했기 때문에 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났고 18C 초반 중류층 가정에서 차와 설탕의 구입비가 가게비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홍차는 유난히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국의 독자적인 홍차문화를 대표하는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의 시작은 19C초 베드포드 공작부인 안나 마리아(Anna Maria)에 의해서다.

7. 아편전쟁

17C 말까지와 18C 초의 주수입품은 각각 동남아시아의 후추와 인도의 옥양목이었던 것이 18C 중반부터는 중국차로 바뀌어 1741년에 80만 파운드, 1750년에 250만 파운드 그리고 1784년에는 1100만 파운드에 가까운 차를 수입했다.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차와 도자기 등을 수입하는데 비해 영국에는 수출할 적당한 물품이 없어 현저한 편무역이 초래되었고 은의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국 내 은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구나 영국 정부가 미국 독립전쟁에 대처할 군비 재원을 위해 차의 관세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차의 밀수가 성행하여 밀수량은 정규 수입량과 맞먹을 정도였다. 밀수 방지를 위해 다시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취하자 이번에는 차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차의 소비가 급증하여 더 많은 차를 수입해야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급해진 영국 정부가 채택한 방법은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여 은을 다시 거둬들이는 정책이었다.

인도에서 대량의 아편을 재배·생산한 동인도회사는 은을 가지고 중국차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1820년 중엽 이후에는 역으로 중국의 은이 대량 유출되기 시작하고, 아편은 중국의 화남, 화중, 화북지역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은 보유량의 급감과 함께 늘어나는 아편 중독자들로 인하여 크게 혼란에 빠진 중국정부는 칙령을 내려 단속을 강화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단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밀수가 횡행하는 등 아편무역은 더욱 성행하였다. 1839년 중국정부가 광저우 근처 해상에서 2,000상자의 아편을 몰수하여 불태우고 침수시키버리자 이에 대한 영국의 보복으로 아편전쟁(1839-42)이 발발한다. 영국의 근대적 병기와 함대의 공격 앞에 굴복한 중국(청조)은 굴욕적인 난징조약(1842)을 맺게 되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2,1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여 영국 상인의 거주와 상업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8. 차 레이스 (Tea Clipper Race)

1833년 중국차 무역에 대한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이 폐지되자 영국에는 새로운 차무역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제일 먼저 차를 싣고 오는 배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관례가 생겨나자 차를 빨리 운반하기 위한 이른바 차 레이스(Tea Clipper Race)가 시작되었다.

동인도회사의 선박이 차를 싣고 중국에서 런던 항까지 오는데 보통 1년 이

상이 걸리던 당시에 미국 선박 오리엔탈호가 95일 만에 입항(1850)하는 기록을 세우자 영국 조선업자들은 크게 자극을 받아 최저시간과 최대 선적량의 경제성에 부흥하는 쾌속범선을 건조하는데 열을 올렸다. 19C 중반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쾌속선의 운반경쟁은 영국인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레이스로서 범국민적인 흥차의 붐을 일으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차를 실은 범선이 템스 강 어귀에 도착하면 흥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물론 선주, 수송업자, 저널리스트, 심지어는 시골 농민들까지 부두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어 영국까지의 거리가 희망봉을 돌아오던 때에 비해 5,000해리나 단축되고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이 기선으로 제한됨으로써 20년 가까이 계속되던 차 운반경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차 운반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차를 생산하는 쾌거를 이루어냄으로써 차의 세계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계속)

복 증

청 봉(淸逢)



한으로 라인은 흥차가는 가는
 진심으로 흥하는 것이 아니다.
 한이 부흥해서이다.
 한으로 라인을 흥차가는 가는
 차는 흥으로 기어오르 진심으로
 흥하는 것이다. -정자-

강남에서 돌아 온 제비

글 • 지현(智賢)

지난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제비 한 쌍이 들어와 살게 됐다.

무려 새끼를 다섯 마리를 낳아서 어미들은 새끼들을 잘 키워내어 돌아갔었다. 그리고 올해 제비 한 쌍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너무도 반가움에 제비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냈다.

이번에도 두 마리의 새끼들을 낳아서 어미들은 쉴 새 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며 새끼들을 키워냈다. 정말 대단한 정성이었다.

나는 저녁때가 되면 제비들이 궁금하여 나가본다. 모두가 들어와 낚은 전선위에 앉아 있었다. 새벽녘에 제비들이 궁금하여 나가보았는데 제비들이 전선위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그렇게 잠을 잤다는 것이다.

밤새도록 그 위에서 잠을 잤는지 놀라웠다. 까딱 잘못하면 떨어져 위험할 수 있고 더군다나 새끼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밤새 얼마나 많이 깨겠는가? 자다 깨다를 반복했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모습하고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는데 너무도 큰데서 사는 걸 좋아한다.

아파트도 큰 아파트를 바라고 물건을 사도 대형마트를 좋아한다.

사람이 사는데 뭐 그리 큰 집이 필요할까.

비 올 때 비바람 막아주고 눈 올 때 따뜻함을 안겨주는 집이면 충분할 텐데 말이다.

고독

글 • 현정화

밝은 달빛 아래서 환한 그리움을 마음다. 신다.

쓸쓸한 외로움에 너를 생각하며 나는 삼매경에 여독을 띄워 보낸다.

옆에 누군가 진한 차 한 잔을 건넬 땀 맑은 향기를 맡는다.

기대고픈 욕정이 띄워 오를 땀 사다리를 안고 별님께

기도하는 순례자가 되어본다.

어디에도 나가지 않는 숨은 겸손함으로 발자국을 남기리.

참지 못한 인내의 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혼자라는 짐이 이젠 그 꺾질마저 벗겨져 자유로운 수행자로 살아가련다.

흐르는 기슭 한 켠의 허전함이 내 벗이 되어 또 다른 벗의 충만함을 나는 배

우리.

끊임없는 홀로서기에 내 벽찬 영혼을 씻는다.

파아란 하늘 아래에서 하얀 멍게구름을 벗 삼아 순수한 동심의 거울이 되리.

지치고 힘들어도 밝은 햇살 아래에서 빛나는 진주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내 마음의 진한 감동을 가지고 이웃의 가녀린 촛불이 되고픈 한 소박한 아낙네가 되어보련다.

교만함과 허영 가식을 밀어내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한 송이 이름 없는 풀잎 되어 촉촉이 대지를 적시리.

구치소에서 발견한 보물

글 • 김○○

「맑고 향기롭게」를 읽었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참 알차네요. 서울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처음 접하는 불교 경전, 불교문화가 생소하면서 참으로 큰 위안을 줍니다. 법정스님의 이름을 접하게 돼서 더 기쁩니다. 제가 42년의 인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접했던 불교 관련 인물인 법정스님과의 인연이 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니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자유를 구속당하다보니 '좋은 책'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더 심합니다. '독자 응모글'을 따로 쓰긴 했습니다만 당선되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좋은 책과 잡지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덕분에 큰 힘을 얻습니다.

★

한창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에게는 문자 그대로 남는 것이 시간입니다. 재판이 없는 날이면 하루 24시간이 전부 자유시간인 셈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동 복도에 있는 책장에서 쓸 만한 책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작지만 정갈하고 예쁜 책이 보이기에 얼른 뽑아보니 「진리의 말씀」입니다. 법정스님께서 번역하신 <법구경>이라네요.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까지 교회에 다닌 것 외에는 따로 종교생활을 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생전 처음 접하는 불교 경전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죄를 짓고서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접해보지 못했을 불경(佛經)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법정스님이 쓰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이름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뢰감이 그만큼 깊었나 봅니다. 평생 처음 접하는 ‘불경’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책을 읽자마자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 권했습니다. 읽아서 부담 없이 읽으시더니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네요.

저도 책을 고이 모셔두고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들어온 후 대부분 힘든 일 뿐이지만 그나마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겠습니다. 또다시 사동 복도에 있는 책장을 살펴보다 「맑고 향기롭게」를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른 보물을 발견한 것 같네요. 열심히 읽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운동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발간하여 병원, 교도소, 군법당, 복지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법정스님의 저서 2만여 권을 국방부와 법무부에 기증하여 양질의 독서문화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자유를 구속받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책을 읽고 용기 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향기로운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중앙모임 (02-741-4696~7)

2013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8월 10일

수술 및 치료를 해야 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심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이웃의 사회적 재화를 지원하고자 실시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최종 선정자는 8월 10일 본모임 홈페이지와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2차로 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수술비와 간병비 등을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지원 한도 50%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해드려 효과적으로 재활에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더라도 직접 비밀번호를 수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사무국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채 후원을 해주시는 분께서는 사무국에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할 것이며, 보내주시신 후원금은 국세청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후원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어 지난 호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중앙모임 후원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나의 후원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월간 맑고 향기롭게>소식지는 PDF 파일로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셨던 분은 기존 가입하셨던 아이디는 동일하나, 비밀번호는 <c1111>로 일괄 처리되어 있으니 수고스럽

법정스님 글, 맑고 향기롭게 연꽃 로고 무단 사용 제재

본 모임은 법정스님의 저작권을 승계하여 한국 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신탁 관리하고 있으며 스님의 글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출판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상징하는 연꽃 스티커(로고)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회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진영각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 바로 전까지 나의 미래, 나의 행복, 나의 꿈으로 욕심만을 채우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 화창한 공기, 따뜻한 햇살, 함께 온 소중한 인연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소유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에서 더욱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깨달음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종종 안식을 얻고 기쁨 드리러 찾아뵈게요. ♥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여기 뒷마루에 앉아서 새소리, 나무 소리, 빗소리 듣노라면 마음이 어느새 편안해집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를 드리며 예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 감사하며 사랑하며 ♥

스님! 신랑 하는 일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 셋도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잘 현명하게 대처해가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스님께 욕심만 부리고 가네요. 스님 고맙습니다.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는 법정스님의 맑은 향기를 찾아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십니다. 진영각 뒷마루에 앉아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이 스님께 꼭 전해지기를 바라며 공감되는 글 몇 점 골라 소식지에 담아봅니다. - 편집자 주



원님께서 주변에서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결식 이웃 밑반찬 조리봉사 안내

본 모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사는 어르신, 장애인, 한 부모 가정 430여 가구에 밑반찬을 조리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서로 웃어가며 함께 하실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저희 모임에서 나눔을 실천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눔의 기부문화 '아름다운 마무리' 대학생 봉사자 모집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연속 8년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기부문화 진작을 통해 법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위한 2013년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캠페인은 4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며, 캠페인 기간에 조성된 기금은 공공부조 수혜에서 벗겨간 차상위계층 등

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비로 전액 집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 홍보활동을 진행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거리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하는데 동참해줄 활달한 성격을 가진 대학생봉사자를 기다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반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해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1일(목), 오전 10시~12시/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매주 목-1,8(김치),22,29일/금-2,16,23,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매주 월요일(5,12,19,26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1,18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4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상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넷째 목요일(22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8월 10일, 청량리역 현관 입구(3층)/8월 25일, 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7,14,21,28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숲기행/3일/성주 한계마을
- 녹색나눔장터/25일(일)/길상사 경내(변경될 수 있음)



광주모임 (062-236-3129)

8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주모임이 광주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 1365 자원봉사활동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 수시로 필요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통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 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서모임 안내 / 8월 14일
- 도서 : 영혼의 모음 / 주제 : 미리 쓰는 유서
- 광주전남불교ngo연대와 함께 7월 10일 정목스님과 안치환의 만남 "아름다운 꽃이여라" 라는 주제로 외국인 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에서도 봉사활동 지원을 하였다.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8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

- 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룸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린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8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

- 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8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문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3 / 이상오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 기도

- 일시 : 8월 3일 (오후 8시~10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8월 10일(오후 9시)
- 장소 :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8월 10일(오후 8시 30분)

(동참하신 불자님께서는 좌복 걸친을 세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 49재 안내 및 회향

하안절제일에 맞춰 백중아미타90일기도 49재가 봉행되고 있으니, 조상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을 참회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 5재 : 8월 7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6재 : 8월 14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7재 : 8월 21일 / 오전 9시 20분 / 극락전

대입 수능 100일 기도 안내

2014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들의 원만합격을 기원하는 100일기도가

7월 31일 입재 봉행되었습니다. 대입수능100일 기간 중 입시특별기도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극락전에서 봉행되오니 수험생 부모님과 불자님께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시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 변동 안내 (8월 22일부터)

8월 22일부터 셔틀버스 운행 시간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운행 시간표는 봉고차량을 운행했을 때의 시간표로, 현재는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기에 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님과 봉사자가 이용하는 시간을 배려하여 효율적으로 운행하고자 8월 22일부터 시간을 조정하오니 양지하여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시간표는 평상시 운행 시간표이며, 특별 행사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길상사 출발	삼선교 출발
8:10	8:30
9:10	9:20
9:30	9:40
12:00	12:10
13:00	13:10
14:00	14:10
16:15	16:30

추계관음기도 입재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묘약입니다. 하안거기도 회향에 이어 추계관음기도가 봉행되오니 기도동참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일시 : 8월22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초하루	9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9월 7일	오후 8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9월14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9월14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추석합동차례	9월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2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9월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50분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넷째	오후 2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 주	오후 1시 20분	소강당